

광주 '방부불교병원' 개원

8월31일부터 진료 시작



◁광주 방부불교병원 전경. 사진=주용직 지사장

광주광역시에 불교종합병원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 288-14번지에 위치한 방부불교병원(원장 홍기표)은 8월 25일 광주 전남지역 불교지도자를 초청해 개원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31일 정식 개원했다.

350여억원을 들여 설립된 방부불교병원은 30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건평 1,800여평, 200여 가용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진단의학과 등 11개 진료과목과 예진실, 종합건강검진센터, 참선실, 다도실,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도 갖췄다.

또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PACS),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기, NON-차트 시스템, 심장 칼러 조음파 등 최첨단 의료장비가 설비됐다.



호남지역 불교인들의 힘과 정신의 집합체로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이념에 따라 설립된 방부불교병원은 앞으로 스님과 재가불자들에게는 진료비 감면, 할인, 재활서비스 등 각종 의료혜택을, 일반인들에게는 자비인술을 베푸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의료지원에 통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 불교 자원봉사·신행단체와의 자원봉사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광주 전남지역에 약 30개소의 의원을 제인으로 연결해 운영하고 있는 방부의원연합은 100여개소로 확대,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경영합리화를 모색한다. 가정의학과에서 1차적으로 진료한 후 각 분과 전문의가 2차 진료하는 전인적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산대 불교학 생회 출신인 홍기표 원장(사진)은 "불교전문병원이라는 지역별 자들의 서원과 노력이 5년여의 준비 끝에 방부불교병원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병원,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병원, 최소의 비용과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실현되는 병원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300여명에 200여 가용병상 보유

11개 진료과목, 참선실, 다도실 갖춰

불자에 진료비 할인...사찰 봉사도

L.A. 고려사 한인타운 내 확장 이전

9월 14일 개관 기념법회

한국불교 우수성 적극 알릴 계획

미국 불교포교에 큰 역할을 해왔던 조계종 21교구본사 송광사 L.A. 분원인 고려사가 한인타운 내 중심부로 확장 이전하면서 더욱 활발한 수행 및 포교활동에 나선다.

인그라함에서 웨스트로 이전한 고려사(회주 현호)는 9월 14일 오전 10시 국제불교회관 삼존불 및 천불 집안식을 봉행하는데 이어 오후 2시 국제불교회관 개관 및 이전 중장불사 기념법회를 갖는다.

고려사 큰 법당은 삼존불을 비롯해 후불탱화 대신 천불여래 부조상으로 장식되며, 소법당에는 고려사 개원 당시부터 모셨던 불 보살상을 봉안해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된다.

고려사는 사찰 이전을 계기로 범포 활성화는 물론 교민과 현지인들을 위한 수행과 수행 프로그램에 대폭 늘리고, 선사상 보급 및 동서양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불교와 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 나갈 방침이다.

1980년 개원한 고려사는 그동안 국제불교회관으로서 한국불교 선사상을 알리는데 기여해왔다. 이번에 이전하는 곳은 1994년부터 체코사람들이 문화관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연락처) 323-957-0500, koreasah@hotmail.com

한명우 기자

익산 '돌 다루기 놀이' 문화재 신청

불자 석공예 명장 권오달(61 돌 문화 보존회 고문)씨의 고증으로 예부터 전해오던 전북 익산지방의 돌 다루기 놀이'가 전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익산시 돌 문화 보존회(회장 김옥수 석공예 명장)는 8월 27일 "국보로 지정된 미륵사지나 왕궁석탑등이 보여주듯 마한과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익산지방의 거석문화의 역사를 되살리는 돌 다루기 놀이'를 문화재로 등록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돌 다루기 놀이'에는 석공들이 원석을 채취해 작업장으로 끌고 와 이를 가공하고 다시 옮겨 세우는 석공에 작업의 전과정과 함께 노동요인 '목도 노래' 7곡이 들어있다.

김원우 기자

틱낫한, 달라이라마 잇따른 방미

달라이라마 스님이 9월 17일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앞서, 틱낫한 스님이 8월 11일부터 미국 순회 법회 및 강연회를 갖고 있다.

9.11 사태 2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달라이라마 스님과 틱낫한 스님의 잇따른 방미는 테러 휴유증으로 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정신을 전하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한달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틱낫한 스님은 9월 1-6일 콜로라도 이스턴파크센터에서 '지혜와 자비' 주제의 법회, 7일 볼더에서 공개법회, 9일 나로파 유니

버시티에서 공개 강연회 등을 갖는다.

10월과 12-14일 워싱턴 디시 히브리회관에서 열리는 틱낫한 스님과 미국 정치인들 사이의 공개 행사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들을 통해 틱낫한 스님은 '용기와 자비심으로 나아가자'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 불교 명상 수행 지도 등을 펼칠 예정이다. 뉴욕=강유신 특파원

김제, 풍년기원 '고시례' 축제 개최



조선 진북대조사의 효심을 되살리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 김제 성모암(주지 종우)은 24일 제2회 풍년기원 고시례 대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전북 김제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6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불자 연예인 가수 이난영 씨와 국악가 주영숙 씨의 공연, 주민노래자랑 등이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종우 스님은 "진북대조사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기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김제시와 협조해 시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례'는 조선시대 진북대조사가 어머니 고 씨의 묘를 들에 쓰면서 "여기가 자손이 없어 어머니에게 천년동안 제사를 지내주는 명당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묵묵한 실천'으로 신행리드

서울 적조사 조성희 경산회 부회장

적조사는 서울 성북동길에서 아리랑고개로 난 산길 중간에 위치해 있다. 정릉에 가깝지만 주소는 문암동에 속한다.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적조사는 4번이나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경산스님이 주석했던 도량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적조사에는 경산스님의 이름을 딴 경산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실질적인 신도회 역할을 하는 경산회의 부회장 조성희(59, 대덕화) 보살은 87년 당시 주지였던 다운스님으로부터 천수경 강좌를 듣기 위해 적조사와 첫 인연을 맺었다. 신출내기 신도였던 조 보살이 경산회 부회장의 직책을 맡게 된 데에는 성실한 신행활동과 특유의 인화

많은 현실에서 사찰은 가정에 이은 또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이 흐트러지면 사회가 흐트러지지요. 사회에서의 신행도 가정생활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 신도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보살은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일상의



◁사찰은 조성희 보살의 또 하나의 생활공간이다.

담담한 이야기를 수필로 남겨둔다. 절에서 있었던 작은 일, 집에서 있었던 일, 기도하면서 느끼는 환희심 등은 모두 낱알이 글로 옮겨진다. 조 보살은 이 글을 통해 바른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제시한다. "내세를 갖지 않겠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조 보살은 "말로 하지 않아도 불심이 우리나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박봉영 기자

성실과 특유의

인화력, 리더십 발휘

생활속 불교실천,

사찰을 가정처럼

력, 열린 사고를 지녔기 때문이다.

조 보살은 시어머님을 따라 73년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 때에는 부처님 오신날과 백중 같은 날에만 다녔다.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생각하게 된 것은 80년대 초반, 삼선포교원에서 불교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맹목적인 믿음을 잃어간 성격 탓이기도 했지만 불교를 모르고 무조건 기도한다는 것이 자신에게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이후 조 보살은 매일 새벽 5시 반아침경과 천수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착실한 불자가 됐다.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해야 진실된 믿음이라는 신념으로 사찰 문화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성 신도가

추천의 말

자성스님 적조사 주지

우리 절은 아직 신도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주요 신도들로 경산회라는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희 보살은 경산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신도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뜻 모으는 구심점 역할

구심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하루, 보름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와 불공을 올리는 등 실천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남달라 다른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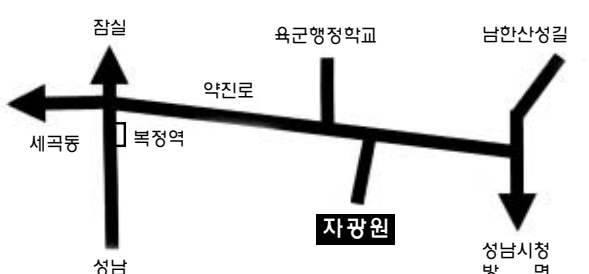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광주일원	주용직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제천지국	제천 / 단양	청산스님	043)644-4366 / 011-485-4080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 정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론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